서기 2006년
5월 25일(목) 제91호

창 간 일 : 서기 1983년 9월 26일
구독신청 : (02) 2244-3717, 2217-3717
F A X : (02) 2243-1073
E-mail : andongkim9@korea.com

安東金氏 大宗會報

발 행 인 : 김 홍 식
편 집 인 : 김 관 묵
인 쇄 인 : 김 성 회
발 행 처 : 안동김씨대종회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112-49
우.130-875
홈 페 이 지 : andongkim.net

人事 말씀

종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60만 종친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제39회 정기총회를 맞아 경향 각지에서 원거리를 마다않고 대성황을 이루어주신 종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는 우리 민족의 지도자이시며 겨레의 스승이신 백범선생님의 숭고한 애국정신이 살아 숨쉬는 곳으로 더욱 감회가 깊은 곳입니다.

존경하는 종친여러분! 지난 한 해는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웠던 시기로 종친 여러분의 가계에도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지구촌 곳곳이 물 난리를 겪었고, 우리나라도 폭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 종친여러분께서는 이 재난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극복하셨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때 나라를 구하고 지켜온 자랑스러운 선조님들의 후손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종친여러분! 저는 작년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종친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종친회가 선진화 되기 위해서는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둘째, 화합하는 종친회를 이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지난해 충렬공 향사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참석하신 종친 여러분의 숭조정신과 경건하고도 엄숙한 의식, 향사를 마치고 음수재에서 함께 중식을 드는 한 자손들의 다정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각 파별로 파조 향사를 정성껏 모시고 각종 위선사업에 온 힘을 쏟으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우리 安東金氏의 자랑이요 전통이라 여겨지며 화합하는 종친회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종친여러분! 병술년 금년에도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종친여러분께서는 슬기롭게 이겨내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종친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읍시다.

끝으로 종친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빌면서 인사말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安東金氏 大宗會
會長 金弘植

제39회 정기총회 성대히 개최

지난 3월 10일(금) 오전 11시에 겨레의 큰 스승이시며 우리 안동김씨의 자랑스러운 어른이신 백범 김구선생의 얼을 기리는 백범기념관에서 종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9회 총회가 성대히 거행되었다.

회순에 따라 사무총장의 성원보고에 이어 흥식회장의 개회선언이 있었고 남응(제)이사의 사회로 국민의례와 선조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린 다음 지난해 문중을 빛낸 종친들에게 공로패 및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어서 태욱(제) 감사로부터 2005년도 회계결산에 대한 감사보고가 있었고, 2005년도 회계결산안, 2006년도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을 상정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내빈으로는 신라문화보존회 김수길회장, 충무공 김시민장군기념사업회 허용기회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했으며 특히 김수길회장은 작년에 이어 금년총회에도 참석하여 안동김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는 축사에 많은 종친들의 박수갈채를 받았고 허용기회장은 충무공김시민장군의 위대한 역사성과 성장과정을 설명하고 김시민장군에 대한 관련자료를 향토사적차원에서 정리하는 차세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축사에 이어 기타 토의시간에 들어갔으나 이의가 없어 오후 1시 10분경 총회를 마쳤다.

◎ 축하화환(무순)
- (사)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김신
- 법무법인(화우)변호사 김태훈
- 한국폐자원재활용수집협회장 김봉식
- 대우증권(주) 대표이사 손복조
- 안렵사공파 재경광기종친회
- 향전원에 김재균
- 안동김씨인천종친회
- 인천광역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한도섭

◎ 2005년도 문중을 빛낸 종친
○공로패
- 김봉수(익) 상임유사(재임 12년)

○축하패
- 김창만(익) 공학박사
- 김진태(익) 경영학박사
- 김민영(익) 이학박사
- 김진교(익) 경영학박사

성금을 보내주신 종친께 감사드립니다

◎ 찬조금 (2006. 1. 3~5. 15)
50만원: (翼)차회
10만원: (翼)진태 (副)병환 (按)태성
5만원: (翼)병국 호식 (文)병희 (郡)재근 종용
2만원: (翼)윤한 (按)관회
1만원: (翼)동회
계: 1,100,000원

◎ 장학기금
5만원: (翼)용식
3만원: (都)기종
계: 80,000원

◎ 통상회비 (2006. 1. 3~5. 15)
5만원: (都)우회 (典)석찬
3만원: (密)덕북 용화 (郡)원회 (典)재청
(副)창식 (提)태경 태흥 (按)익회 태헌 인묵
(翼)재봉 영두 선욱 점봉 태관 재화 수길 용해 을순 태준 수은 윤회 흥식 수덕 일회 철회
2만원: (密)중회 재국 (開)상위 (副)수일 (文)태연 윤만
(都)영수 재욱 (提) 태성 용환 흥열 규태 태하
(按)덕기 만회 재명 갑묵 태길 이회 재관 장경 태은 재하 영준 천회
(翼)용식 만천 태훈 태위 수대 정회 학묵 윤한 태원 낙회 노수 호식 재환 수석 문촌 수기 두철 진수 재봉 창성 진창
(書)규태 (正)수진 태국 재호
1만5천원: (典)재현
1만원: (郡)재운 (文)수섭 (提)철호 (按)사진
계: 1,935,000원

고려숭의전 춘향대제 봉행

지난 3월 31일(금) 오전 11시,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에 위치한 고려숭의전에서 각계인사 및 16공신 門中종친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춘향대제가 엄숙히 봉행되었다.

이날 우리 門中에서는 흥식대종회장을 비롯하여 命會숭의전보존회장, 태육감사, 인천종친회 춘교회장, 익원공파 만길 총무부장, 익원공파 통추공 종회 만교회장, 태집(익), 운식(제), 봉식(익), 태성(안), 흥국(전) 관묵사무총장이 참석하였다.

이날 충렬공 할아버님 신위전에는 인천종친회 춘교회장이 헌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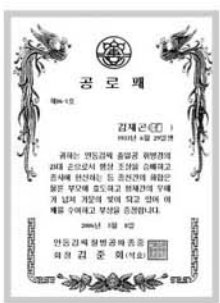
숭의전은 고려태조를 비롯하여 현종(顯宗), 문종(文宗), 원종(元宗)의 大王四位와 고려 16공신을 配享하여 600여년간 享祀해오고 있는 유일한 고려 太廟이다.

처음에는 八王 [혜종(惠宗), 성종(成宗), 현종(顯宗), 문종(文宗), 원종(元宗), 충렬왕(忠烈王), 공민왕(恭愍王)]을 부제(附祭)하여 享祀하였으나 世宗년간에 현존 四位만을 春秋로 매년 향사하고 있다.

宗中消息

군사공파 찰방공종중에서는 연중행사로 善行宗親및 孝子 孝婦를 발굴하여 표창하고 있다.

특히 효부 密陽人 손해순여사는 현찰방공종중회장인 원회종친의 妻이다.



판서공 휘 선(判書公 諱愃) 시제 봉행

지난 4월 13일(목) 오전 10시, 전남 강진군 작천면 토미리에서 충렬공의 장자이신 판서공 휘선(諱愃) 대제학공 휘승용(諱承用) 평리공 휘후(諱厚) 군사공 휘칠양(諱七陽) 4位의 시향이 종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봉행되었다.

이날은 날씨가 고르지 못해 재실에서 제향을 봉행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군사공파 수인회장을 비롯하여 밀직사사공파 영응회장, 개성윤공파 상국회장, 문온공파 광우회장, 분온공파 광도대종회 이사가 참석하였다.

안사연에서는 영환, 상석, 윤만, 발용, 진회종친이 참석하였다. 특히 강진 재이 종친께서는 서울에서 온 종친들을 위해 숙소를 미련해주고 저녁식사를 대접하였다.

재이종친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松泉書院 春享大祭

지난 4월 17일 오전 11시, 충북 청원군 오창면 양지리에 위치한 송천서원에서 도내유림 및 本孫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춘향대제를 거행하였다.

이날 분헌관은 다음과 같다.

- 초헌관:
  오정식 (유도회 충북본부장)
- 아헌관:
  이승재 (유도회 청주지부 부회장)
- 종헌관: 유장준(유림)
- 대축: 김창현(유림)
- 집례: 조창현(유림)
- 직일:
  노양우 (유도회 청주지부장)

松泉書院에는 按廉使公(諱士廉)이 主壁으로 모셔져있다. 도유사에는 안렴사공파 부회장인 泰文종친이다.

-도유사 태문(안) 제공

안렴사공파 정기총회 개최

지난 3월 2일, 안렴사공파종회에서는 오창읍내 새마을금고 4층회의실에서 종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성대히 거행하였다.

영만회장은 바쁘신 중에도 많은 종친이 참석하여 고맙다는 인사말과 우리종친들이 더욱 화합하고 단합하여 종친회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부탁한다는 인사말을 하였다. 이어서 영만회장은 약 30분에 걸쳐 충렬공 할아버님의 行狀소개, 안렴사공 휘시렴(諱士廉)소개, 고려숭의전 역사, 가족법시행령에 대한 해설을 하여 종친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식순에 의거 성회감사로부터 감사결과 보고가 있었고 태문상임부회장의 2005년도 결산보고 및 2006년도 예산안 상정이 있었는데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기타토의에서는 이의가 없어 오후 1시경 모든 행사를 마쳤다.

-안렴사공파종회 제공

인천종친회, 제30회 정기총회

인천종친회(회장 춘교)는 지난 4월 29일 오후 4시, 시내 장안웨딩홀부페에서 80여명의 종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0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내빈으로는 경기화성의 화기공종회 두교회장, 종문 고문 그리고 익원공파 전첨공后 충민공 휘 흠(忠愍公 諱欽)종회 재관회장, 멀리 논산에서 재택총무가 참석하여 총회의 자리를 더욱 빛내주었다. 회순에 의거 인천종친회 창립 30주년을 축하하는 케이크 절단식과 춘교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종친회 발전에 공이 큰 前재환회장(안), 준회(익), 태봉(안), 옥식(전) 종친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어 지난해 회계결산, 사업추진 결과보고와 2006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연중행사로 ①선조님 향사 적극참여 ②신입 종친회원 가입 권유 ③외부 행사 수시 참석 ④유공 종친 발굴 표창 ⑤불분명한 내조상 찾기 운동 전개 ⑥종친회활동 홍보 ⑦대종회 회보 일괄 인수 배부 ⑧야유회행사 ⑨민속절 윷놀이행사를 결정했고 특히 인천종친회에서는 종친회원 각자 종친 모셔오기 운동을 전개하여 지난해 19명의 신입회원이 증가하였다.

석식에 이어 제2부 순서로 섹스폰 연주에 이어 노래자랑 등 여흥시간을 가졌으며 푸짐한 상품과 기념품을 증정하였다. 총회는 시종 화기애애한 가운데 오후 8시 모든 행사를 마쳤다.

– 인천종친회 제공

청주종친회 제59회 정기총회

지난 3월 27일 청주종친회에서는 市內 [거구장]에서 종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9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式前 30분에 걸쳐 청주종친회 윤회고문과 선회부회장의 보학강의가 있었다.

이어 식순에 따라 영목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2005년도 회계결산, 사업경과보고, 2006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다.

임원선출에 들어가 임원선출을 위한 운영위원을 소집하여 협의한 결과 선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임 회장에 현 영묵회장이 유임되었으며 부회장에 회윤(안) 태영(익) 한식(제) 선회(안) 종친이 선임되었으며 총무에 재만(제)종친이 선임되었다.

괴산·증평군 종친회 총회

지난 3월 21일, 괴산·증평군 종친회에서는 시내 우가촌 식당에서 종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학응회장은 인사말에서 총회가 화합된 분위기에서 축제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당부에 이어 재성(안) 증평군종친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식순에 따라 2005년도 회계결산 및 사업보고, 2006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특히 재성증평군 종친회장은 그간 종사에 참여치 못한 젊은 종친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청장년회를 조직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서운관정공파 廣州齋室 慕先齋 竣工式 擧行

지난 4월 2일, 서운관정공파종회에서는 경기도 광주시 초월면 지월리에 위치한 문화재묘역에서 내빈및 종친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선재(慕先齋) 준공식을 가졌다.

의식은 국민의례와 경과보고, 유공종친 감사패수여, 내빈소개, 상호이사장의 인사말, 내빈축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내빈축사는 홍식대종회장, 박광수 배재대학교총장, 강대욱경기도 초대박물관장, 박갑득 광주시유도회장이 해주었다.

축사에 이어 테이프 절단과 모선재현판식을 거행하고 재실에 모신 선조님 신위에 경건한 마음으로 참배하였다.

특히 이날은 쌀쌀한 날씨에도 원거리에서 문영공학응회장, 제학공파영묵회장 익원공파재용회장 안렴사공파태문 부회장이 참석하였으며 안시연회원들도 다수참석하여 자리를 더욱 빛내 주었다.

모선재에는 서운관정공 휘 수(諱綏)의 7세손이신 휘 홍도(諱弘度)와 配位, 하당공 휘 첨(荷堂公 諱瞻)과 配位, 서당공 휘 성립(西堂公 諱誠立)과 配位, 노은공 휘 정립(老隱公 諱正立)과 배위를 모신 祠堂이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뷔페오찬이 약 1시간30분동안 이어졌고 모든 행사가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이루어졌다.

– 서운관정공파종회 제공

慕先齋 瞻拜所感

吾等元祖太輔公	우리들의 원도이신 태보공 님은
西歷紀元六五年	서력기원 육십오년에
亞州東城徐羅伐	아시아주 동방 서라벌에
脫解九年下降天	석탈해왕 구년 하늘에서 내려오시니
敬順四子殷說公	경순왕의 네째 아드님은 은열공이시고
公之次男叔承祖	공의 차남 숙승 할아버님께서
分籍安東一門開	분적하여 안동 김문을 열으시니
春風秋雨過千載	어언간 천년의 세월이 흘러갔네
高麗名相方慶祖	고려조의 명상 방경 중시조님은
吾門貫祖七世孫	오문관조 숙승님의 칠세손이시고
安東祿轉卧向南	안동고을 녹전 능동에 누으셔서
六拾萬枝蔭佑孫	육십만 우리들 후손을 돌보시고 계시네
玄孫分脈十五派	후손들이 분맥하여 십오파를 이루었고
書雲觀正其一派	서운관정공파는 그중 일파라
派祖禮參諱綏公	파조이신 예조참판 휘 수 님은
不事二君麗忠臣	불사이군 두문동 고려충신이라
廣州齋室慕先齋	광주고을 재실 모선재는
爲先祠宇追慕殿	선조를 모신 사우 추모전이요
領議政公諱弘度	영상공 휘 홍도님과 좌측
派中巨儒配享閣	거유들의 위패를 모신 배향각이라
西堂配位蘭雪軒	서당공의 배위 허난설헌 할머님은
女流詩聖萬邦輝	여류시성으로 만방에 빛나고
詩碑建立文化財	시비를 건립 문화재로 등록되니
觀客不止皆追仰	관객은 그칠줄 모르고 모두가 추앙하네
三韓甲族吾金門	삼한 갑족인 우리 김문은
名公巨儒數不據	명공거유가 헤아릴수 없으니
非道不去儒生道	길이 아니면 가지않는다는 선비정신으로
家家遵守古良俗	집집마다 옛 양속을 지켜가자
與世相違人生路	세상사 뜻과 같지 않음이 인생로이나
患難相恤德業勸	어려울 때는 서로돕고 덕업을 권하면서
"弘益大道"先遺訓	"홍익대도" 선조님의 유훈을 따라
仰天不愧去常道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상도를 가자

西紀 2006年 丙戌 四月 二日

安東后人 傍孫 凡山 金泰煜 謹撰

괴산 능촌리의 제학공파 묘역 조성사업 및 고유제 봉행

지난 4월 5일(수), 제학공파의 대표 집성지인 충북 괴산군 괴산읍 능촌리 개향산에서는 제학공(휘 益達)의 5대손인 참판공(휘 彦默) 이하 24위 선조님들의 묘소를 한 곳에 이안하여 합동 묘역을 조성하고 이를 이회는 고유제가 봉행되었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15일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소래산의 참판공(휘 彦默)과 현감공(휘 孝甲) 묘소 이안을 시작으로 4월 5일까지 약 20여일간에 걸쳐 묘역 조성 공사를 한 뒤 실시되었는데, 이 고유제 행사에는 제학공파 후손 약 50여 명이 참석하여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기존에 모셔져 있던 7위의 묘소와 이안해 온 17위(3위는 가묘)를 전 6단으로 나누어 조성한 대형 묘역의 각 묘소에는 호석과 와비를 새로 설치하고 사초를 하였으며 진입로는 59개의 계단석으로 아름답게 조성하였다.

총 공사비 6천 7백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이는 제학공파 능촌종중에서 문중 위토(산 28-1번지 임야) 매각비용(04년 12월. 1억2천만원)으로 충당했다.

묘역 조성 선조님과 고유제 봉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묘역 조성 선조님〉

- 기존 위 : 7위-(1)의김씨 할머님(참판공 휘 彦默 배위), (2)영상공(휘 錫), (3)비안공(휘 仁甲), (4)동은군(휘 可敎)
- 신 이안 위 : 17위-(1)참판공(휘 彦默), (2)구암공(휘 思甲), (3)현감공(휘 孝甲), (4)부평공(휘 時晦), (5)송화공(휘 緯), (6)안흥군(휘 緖-가묘), (7)송화공(휘 得宗), (8)안풍군(휘 得臣-가묘), (9)화은군(휘 天柱-가묘), (10)참판공(휘 天挺), (11)동은군(휘 可敎), (12)연천공(휘 可行)

〈고유제 헌관〉

- 초헌관 : 대식, 효식, 윤정
- 아헌관 : 태섭, 천용, 두용
- 종헌관 : 규형, 창렬, 태헌
- 축관 : 태석

-기사제공자:恒鏞(提)

제학공파 비안공 문중회의 충익공 문중 묘비 건립 및 고유제 봉행

〈신 조성된 충익공 묘소〉

〈고유제 후 기념촬영〉

지난 4월 15일과 16일, 충북 괴산과 제천에서는 조선 중기 인조 때의 명신이요 병조판서를 거쳐 판중추부사(종1품)에 오르신 후 청백리에 녹선되신 우리 문중의 자랑스런 선조님이신 충익공(휘 時讓)과 그 후손 4위에 대한 묘비 건립 및 고유제 봉행이 거행되었다.

제학공파 비안공문중회에서 주관한 이 행사는 15일(토)엔 충북 제천시 봉양면에서 충익공의 손자와 증손인 도사공(휘 秋萬-의금부도사)과 밀양공(휘 鳳至-밀양부사)의 묘비 건립과 사초를 하였고, 16일(일요일)엔 충북 괴산군 능촌리의 제학공파 집성지에서 약 60여명의 종친들이 모여 충익공, 합천공(휘 穀 -합천군수), 사휴재공(휘 徽-이조판서)의 묘비 건립 고유제 및 개막식을 거행하였다.

아울러 이날 능촌리 묘역 앞 도로가에 있는 충익공 신도비에는 해설판을 설립하여 오가는 이들에게 선조님의 유적과 위업을 알리고 더욱 빛나게 하였다. 한편 개막식에서는 비문을 찬한 두응, 항용 종친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이 사업은 제학공파 비안공문중회(회장-斗應)의 작년 사업인 비안공(휘 仁甲), 양덕공(휘 時說), 안주공(휘 繁) 묘비 건립에 이은 연속 사업으로서 충익공문중 묘비 건립 추진회(회장-桂天)에서 후손들로부터 약 2천5백만원의 성금을 모아 추진한 것이다.

◈ 석물 건립 및 고유제 내용

선조님	석물내용	고유제(헌관)
충익공 (휘 時讓)	6.5자묘비(두응 찬), 구대, 이수, 장명등, 양마석,	초헌:두응, 아헌:태섭, 종헌:항용 축관:항용, 집례:남용
합천공 (휘 穀)	5자묘비(두응 찬), 동자석	초헌:상춘, 아헌:영묵, 종헌:익수 축관:항용, 집례:남용
사휴재공 (휘 徽)	6자묘비(항용 찬), 구대, 이수, 장명등, 양마석	초헌:상천, 아헌:영수, 종헌:태영(군) 축관:항용, 집례:영묵
도사공 (휘 秋萬)	5자묘비(두응 찬), 사초	초헌:상천, 아헌:규영, 종헌:규원 축관:항용, 집례:항용
밀양공 (휘 鳳至)	5자묘비(두응 찬), 상석, 망주석, 사초	초헌:영희, 아헌:규영, 종헌:상춘 축관:상천, 집례:상천

※ 이 외의 자세한 진행과정과 비문, 사진 등은 홈페이지(andongkim.net)의 '제학공파-비안공문중회' 란에서 보실 수 있음.

-기사 제공자 : 恒鏞(提)

안사연의 제주도 선조님 유적지 탐방 행사

안사연(안동김씨 사이버 학술연구회)에서는 자체 연간계획에 의하여 지난 2월 25일부터 2박 3일간 제주도 일대에서 문중 선조님들의 각종 유적을 답사하는 행사를 가졌다.

제 28회 정기산행을 겸한 이 행사에는 총 16명이 참여하여 한학자요 제주도 문화재위원이신 익수(제, 보명-태익)종친의 안내와 해설로 진행되었는데, 충렬공(휘 方慶)의 삼별초군 토벌 작전과 관련한 유적지를 비롯하여 병사공(문, 휘 胤宗), 남봉공(제, 휘 緻), 통제사공(군, 휘 永綏), 휘 志(안), 휘 麟至(제) 선조님들의 각종 역사 유적지에 대한 탐방과 탑본 작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목사 근무처였던 목관아지에서는 恒鏞(제)종친이 준비해 간 남봉공(제주판관 역임)의 유물인 남봉집(석판본, 1983년 金相馨 편집 발간) 1책과 교지(복사본) 3매를 기증하여 앞으로 목관아지 전시관에 상설 전시토록 하였다.

특히 이 행사에서 익수종친께서는 답사지 안내와 해설은 물론 답사용 전세버스와 제주 칼호텔의 고급석식까지 제공해 주시는 등 분에 넘치는 환대에 일행은 깊이 감사해 했다.

자세한 내용 및 사진 자료들은 〈안동김씨 홈페이지〉의 사이버연구회란에 실려 있다.

- 기사 제공자 : 恒鏞(提)

◈ 답사 일정과 내용

1. 일정 : 2006. 2. 25~2. 27(2박 3일)
2. 참가자(무순) : 영환(문), 영윤(문), 상석(제), 발용(군), 진회(밀), 익수(제), 태영(군), 항용(제), 용주(안)-부부동반
3. 답사 및 탁본 활동 세부 내용
   - 가. 충렬공(휘 방경) 유적지 탐방 : 함덕포, 환해장성, 옹포, 애월포, 비양도, 항파두리성
   - 나. 방선문(제주시 오라동)의 마애시 탐방 및 탁본 : 남봉공(휘 치), 통제사공(휘 영수)의 마애시 탁본
   - 다. 용두암 옆 용연의 마애시 탐방 : 통제사공의 마애시 답사
   - 라. 자연사박물관 탐방 : 남봉공의 시문 대형 현판 관람, 용연의 통제사공 마애시 탁본 자료 조사
   - 마. 목관아지 및 관덕정 탐방 : 병사공(휘 윤종)과 통제사공의 목사 근무자료 조사, 관덕정 누각 현판(통제사공 친필-耽羅形勝) 관람, 남봉공 유물(남봉집 1책, 교지 3매) 전시관 기증
   - 바. 조천면의 선정비군 탐방 : 통제사공 선정비 답사
   - 사. 성읍 민속마을 탐방 : 휘 지, 휘 인지의 유배지 답사

〈관덕정의 통제사공 친필 대형 현판〉

〈삼별초군 주둔지인 항파두리 성에서〉

〈제주시 오라동 방선문의 마애시 탁본장면〉

〈충렬공 상륙지인 함덕포에서〉

仁川地方警察廳 訪問

지난 4월 27일 대종회 흥식회장은 인천종친회 춘교(典)회장 인천시 남구의회의장 태웅(提), 관묵사무총장과 함께 새로 부임한 大植(익) 인천지방경찰청장을 만나 환담하였다.

흥식회장의 축하 인사와 大植청장의 방문 감사 인사말등 30여분간 덕담을 나누었다.

대식청장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現대구종친회 실경회장과는 從兄弟間이다.

栢谷 金得臣선조님의 시문집 〈국역 백곡집〉(절구편) 발간

좌-증평문화원 간,
우-파미르 간(판매용)
※좌측의 표지화는 백곡 친필 병풍 족자임.

지난 1월 20일, 백곡 김득신 선조님의 시문집인 〈국역 백곡집〉(절구편)이 발간되었다.

한국 문학사상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시인으로 이름 높은 백곡 선조님은 임진왜란 당시 진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충무공(휘 時敏)의 손이시며 인조때 경상 감사를 역임하시고 명역술서인 〈深谷祕訣〉과 문집 〈南峰集〉을 남기신 남봉공(휘 緻)의 아드님이시다.

충북대학교 한문학과 교수이며 충북 증평의 〈백곡 김득신 기념사업회〉 연구위원이신 신범식 교수가 증평문화원의 협조를 받아 약 3년여의 노고 끝에 발간한 이 국역집(파미르 간, 2만5천원)은 백곡집 전 작품 중 오언과 칠언 절구만을 발췌하여 번역한 것이다.

신교수님은 앞으로도 연속하여 나머지 작품들을 국역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는데, 이 책은 현재 주요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기사 제공자 : 恒鏞(提)

안동종친회의 민속씨름대회장 방문

지난 3월 22일 안동종친회에서는 안동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안동민속씨름장사대회에 참석하여 전 대종회 15대회장이며 현씨름연맹 총재인 재기현종을 접견하고 담소를 나누었다.

이날 안동종친회에서는 성식, 석교, 봉수, 동수, 봉진, 태휘, 광득종친이 참석하였으며 안동종친회에서 마련한 간소한 선물을 전달하였다.

이에 재기현종은 감사하다는 인사말과 함께 아쉬운 작별을 하였다.

충렬공 묘소 안내 이정표

지난 4월 17일 대종회에서는 안동종친회의 협조 아래 충렬공 묘소 안내 이정표를 세웠다.

이정표는 감애삼거리, 충렬공 신도비각 옆, 재실 진입로(구송다리) 등 세 곳에 설치하였는데 兩방향에서 볼 수 있도록 했으며 야광으로 제작하였다.

이날 작업에는 안동에서 성식, 봉수, 석교, 광득, 봉진, 광현, 봉회 종친이 참석하여 작업을 도왔으며 오후 5시 30분 작업을 마쳤다.

安東金氏 門規(家訓)

① 警心箴 : 자신을 경계하고 자손들을 경계시킨다.
② 事親 : 부모님을 정성껏 모신다.
③ 輔君 : 임금을 보좌하여 나라에 충성한다.
④ 祭禮 : 제례를 잘 모신다.
⑤ 正家 : 집안을 바르게 다스린다.
⑥ 友愛 : 형제 자매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한다.
⑦ 謹刑 : 타인에게 벌을 주는 것을 삼가한다.
⑧ 愼色 : 여자와의 관계를 삼가간다.
⑨ 結友 : 친구를 잘 선택하여 사귀도록 한다.
⑩ 安貧 : 가난을 벗어나 편안하도록 한다.

松陽金光粹 韓國家訓自訓學會발행
"韓國門中別家訓"에서 발췌

향전원에
대표 김 재 균

경조화환 · 화분
전화 : 783-3166~7
780-8477
팩스 : 780-8478
자택 : 552-53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0(프린스텔 1층 1,2호)

자랑스런 안동인 '월간스토리문학' 詩부분 당선

會珍(按)종친 신인작품상

친 구

손에 닿을 거리에 있으면서
항상 나무끝에 매달린
까치 소리에
세월을 동여매고 있다.

살아 끈끈한
정하나 엮어
눈붉힌 뒷모습 쫓다
마주하던 모습

지난 밤
잠 이루지 못한
뚫린 가슴으로 헤메던
시간 멈춰선 곳에
다시 되돌아와
문앞에선 너

오늘은 노을 속 텀빈
들판을 달리고 있다.

충북진천출생, 고려대학교 및 동대학원 영문과 졸업 문학박사, 현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저서 〈영문학사〉, 〈영어문학사〉등 다수. 번역서로 〈동물농장〉, "〈노인과바다〉, 〈테스〉가 있다.

77세에 경영학박사학위 취득 - 振台宗親

익 원 공 19代 손인 진태종친은 2006년 2월 건국대학교 대학원 벤처전문기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경영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종친은 영남대행정학과를 졸업하고 40여년만에 학업에 도전하여 이 영광을 안았다. 하지만 고령으로 체력이 달리고 익숙지 않은 영어때문에 쉽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종친의 장자인 敏泳종친도 스톡홀름대학에서 이학박사학위를 받아 父子박사가 탄생하여 가문의 영광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종친은 대종회이사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는 (주)삼아산업 대표로 기업경영에 전념하고 있다.

경력은 경북청도경찰서장으로 시작하여 경산 울진 고양 서귀포 공주 강경 인천경찰서장을 끝으로 정년퇴임했다.

禮節 밝은 安東人

군사공파 十九代孫 在坤(73세)

우리나라는 고대(古代)로부터 동방예의지국(東方禮義之國)이다.

그러나 서구문화가 물밀처럼 들어와 우리 유교문화의 근간(根幹)인 효친사상(孝親思想)과 예절문화(禮節文化)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사회현실을 볼 적에 한탄을 금할 수 없다.

전북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에 살고 있는 재곤종친(在坤宗親)은 이와 같은 우리사회의 미래를 걱정하고 남은 인생을 효친사상과 예의범절을 젊은세대와 후손에게 승계될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부터 효도(孝道)와 예절교육(禮節敎育)을 철저히 실시하고 사회에서는 평소 사람을 만나면 먼저 인사하여 친절감을 심어주고, 나이 많은 분에게는 부모님과 같이 공경하고 섬기며, 청소년에게는 사랑의 정을 베풀어 선도(善導)하고, 애사(哀事)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위로 격려하며, 상사(喪事)에는 경건한 마음으로 조의와 상주(喪主)를 위로하고, 종친간에는 예의바른 처신을 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주민과 젊은층의 모범(模範)이 되고 있다.

재곤종친의 투철한 효친사상과 밝은 예절은 행안면 면민과 우리 종친들로부터 큰 박수와 격려를 받고 있어 우리 일가 안동인(安東人)중에서 재곤종친과 같은 훌륭한 인물이 많이 배출(輩出)되기를 갈망하는 뜻에서 감(敢)히 이 글을 쓰게 되었다.

군사공파十七代孫 榮得